

# 16차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의 담당자 인터뷰

## 멕시코의 Echegoyen Lopez 환경자원부 국장

Monica Paola Echegoyen Lopez는 올해부터 멕시코 환경자원부의 환경정책 및 계획 차관부 소속 국제환경정책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금번 칸쿤에서 개최된 제 1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관련하여 멕시코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제도들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Green Hub Korea 2010'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이번 인터뷰를 에서 멕시코가 지난 1년간 기후협약회의를 준비한 노력을 설명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에 덧붙여 멕시코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진행하고 있는 정책 및 프로젝트를 소개했으며, 한국기업과 단체들과의 참여와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Monica Paola Echegoyen Lopez

### 인사약력

#### ■ 학력

- 멕시코 국립대학(UNAM) 국제관계학 학사

#### ■ 약력

- 2010~현재 : 환경자원부(SEMARNAT) 국제환경정책 국장
- 2004~2009 : MGM International 사 CDM규제문제 담당디렉터 / 멕시코 사무소장
- 2003~2004 : 연방공공정보접속연구소(FAI) 자문위원
- 2001~2003 : 에너지부(SENER) 에너지 정책부 총괄 / 국제 업무부 부서장
- 1998~2001 : 국립생태연구소(INE) 환경규제부 부서장
- 1997~1998 : 환경자원부 기획총괄부 부서장

**Q. 멕시코의 기후변화 관련정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멕시코는 교토의정서의 서명과 함께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를 수행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매탄가스수집, 오·폐수 처리시설, 농업 분야, 석탄광산, 석유 생산 및 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태양력)기반 전력생산 등과 같은 분야에서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CDM 프로젝트 수행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중심 개념은 멕시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

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지표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및 관리와 상기 언급한 지표간의 통합 및 교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2050년까지 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세단계의 국내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1단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며 기존 멕시코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경제적 평가를 통해 향후 진행될 작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고 2단계는 2030년까지 진행될 것이며, 이 단계에서는 각 산업 분야별, 지역별, 국가별 전략을 수행하며, 그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50년까지 진행될 3단계

는 각 분야별로 수행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전략을 통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CDM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비용-수익 측면에서 사업성이 뛰어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자금원 마련과 결합하여 향후 2012년 이후 교토의정서가 마무리된 이후, 멕시코에서 진행될 CDM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진행과 개발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멕시코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총 4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청정기술 및 효율성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 신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와 금융 인센티브의 확립, 신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운영·소비에 따른 경제적 이익 증대, 낮은 에너지원단위 기술연구 조장이라는 세부정책이 동반되며, 신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 및 운영, 소비를 유리하게 하는 법률적 제도를 형성해 청정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거·산업·농업·운송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정책을 기본으로, 현재 멕시코에서는 ‘국가에너지절약위원회(CNAE)’와 ‘고효율 기자재 인증(FIDE)’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지 및 산업시설에서 백열전구와 같은 에너지 소비가 높은 제품을 에너지 절약형 전구로 교체하기 위해 에너지부(SENER) 주관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멕시코 표준인증(NOM)을 제정하여

에너지 소비가 높은 전구의 생산 및 유통을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기존의 전구를 교체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주택 설계 시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며, 산업부문에서는 사업체의 운영과정에서 온실가스배출량 감소효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배출 감소 시장구조에 참여하도록 조장하는 정책을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시멘트, 철강, 설탕 산업은 열병합발전을 통한 에너지 절약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이러한 열병합발전은 온실가스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열병합발전과의 결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차량 배기가스 배출수준을 국제표준 수준에 맞추는 전략입니다. 현재 멕시코에는 약 3000만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 사용, 차량 기술 혁신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사용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시스템의 확립과 이러한 제품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구매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기준과 규격을 제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고 새로 출시되는 차량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무화 시킬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차량 정기점검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철도교통 및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사용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에서 에너지자원 회수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주거, 산업, 공공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경제성이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유기폐기물을 통해 매탄가스를 채집하는 등 쓰레기에서 새로운 에너지자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 멕시코가 제 16차 기후협약 회의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입니까?**

# interview

기획특집

정책동향

최신녹색기술

투자동향

환경뉴스제

주요인사

환경전시회

르포

A. 멕시코는 제1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 이번 칸쿤 회의에서 기술적, 정책적 협의를 이끌어내어 구속력 있는 지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멕시코는 여러 국가, 지역, 그룹간의 협상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협상의 주요 의제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국가 및 지역 간의 정치적, 기술적 문제들의 협의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협의를 이끌어 내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 선진국의 온실가스 목표 준수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한 '국가별 맞춤 감축활동(NAMA)' 수행
- 온실가스의 측정, 보고, 검증 (MRV=Measure, Report, Verification) 항목 제정
- 임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포함한 메커니즘
- 지속가능한 개발을 핵심요소로 받아들이는 인식
- 적절하고 예측가능한 단·장기 포괄적, 혁신적 금융 메커니즘
- 개발도상국의 기술수준 및 과학기술역량 강화 메커니즘
-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그 외 각 국가 간의 입장 및 이슈들에 대한 협상인터뷰한 시점까지 정리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다고 밝힘)

## Q. 한국과의 기후변화 관련분야 협력가능성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현재 멕시코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멕시코로 유입되는 기후 변화관련 국제적인 금융 지원규모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멕시코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산업에서 효율적인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거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금 조성을 통해 멕시코 내에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유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기후변화 산업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므로 기술적 기반과 지역 연구개발센터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기술협력 협정 등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의 향상은 단순히 한 국가 소유의 기술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가 공유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기후변화협약 회원국들의 참여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멕시코에서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면 멕시코 정부에서는 사업과정을 지원하고 멕시코에서 활동성을 보장하는 등의 혜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기업들의 기후변화 사업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멕시코와 한국간의 기술협력을 통해 기후변화관련 기술을 공동연구하거나 각종 기후변화관련 사업의 기술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많은 한국 기업과 단체들이 멕시코와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